

미래엔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vol.11

2017년 5월호

www.m-teacher.co.kr
edu.donga.com

추천! 진로체험 프로그램

‘추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가면 좋을 진로체험활동을 추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이뤄지는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진로탐색캠프’

“우리나라 무형유산, 직접 체험해 봐요”



무형문화재를 직접 체험해보는 학생들.국립무형유산원 제공

우리나라의 전통과 얼을 간직한 문화유산은 형태의 유무에 따라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나뉜다. 이중 판소리, 민요, 강강술래와 같은 무형문화재는 형태가 없고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전북 전주시에 있는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행정기관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재를 생생히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올해 마련했다. ‘무형유산 진로탐색캠프’는 학생들에게 무형문화재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무형문화재 전승자를 통해 직업탐색의 기회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이뤄지는 이 프로그램은 올해 △5월 30~31일(1박 2일) △6월 20~21일 (1박 2일) △8월

9~11일(2박 3일) △9월 18~20일(2박 3일) △10월 16~18일(2박 3일) 총 5회가 열리며 5월과 6월은 1박 2일로, 8~10월은 2박 3일로 진행된다.

‘무형유산 진로탐색캠프’는 △무형유산 체험 △무형유산 전문가 교실 △무형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게임(미션게임, 낱말 퀴즈, 도전 골든벨)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형유산 체험에서는 강릉단오제, 진주검무, 처용무, 자수, 살풀이춤 등 다양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을 직접 체험해본다. 무형유산 전문가 교실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으면서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외에도 가로세로 퍼즐을 활용해 국가무형문화재의 이름을 맞추는 게임을 하고 ‘우리 춤 1분 취보기’ ‘장구장단 맞추기’ 등 무형문화재를 미션형식으로 즐기며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무형유산 진로탐색캠프’는 한 회에 30~35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꿈길사이트에서 접수 가능. 문의 063-280-1524

▶▶이원상 기자 leews111@donga.com

체험활동 연관 직업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의 전통문화를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후손들에게 전수교육을 한다.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고 대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유지·전승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업무 체험학습 프로그램’ “소비자 분쟁 조정은 이렇게”



멘토-멘티 프로그램에서 업무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학생들. 한국소비자원 제공

의류, 생활용품 등 제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 생활 과정에선 불만이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충북 음성군에 있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처리하고 피해를 구제해줄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관련된 법·제도를 연구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조사·시험 검사를 하는 등 소비자를 위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는 국가 전문 기관.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소비자업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업무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한국소비자원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배우고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약 4시간(점심시간 포함)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크게 △한국소비자원의 기능과 역할 소개 △멘토-멘티 프로그램 △한국소비자원 주요시설 견학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학생들은 먼저 피해 예방과 소비자의 안전,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한국소비자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소비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어떻게 주는지 배우는 것.

이후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구제·분쟁조정 △시험검사 △소비자 정보 제공 △연구조사 등에 대한 맞춤형 진로탐색 시간도 갖는다. 참여 학생들은 4가지 업무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에게 해당 업무에 대한 정보와 경험담을 들을 수 있다. 피해구제·분쟁조정 업무 담당자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구제절차를 거쳐 해결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시험검사 업무 담당자는 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소비자정보 제공 업무 담당자는 제품의 선택·사용 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는 법에 대해 안내하고, 연구조사 업무 담당자는 시대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를 예측 및 조사하는 과정에 대해 소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무료로 중식을 제공해주는데, 중식 시간 이후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시험검사시설, 홍보관 등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진 뒤 기념 촬영을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한다. ‘소비자업무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한 회에 30~40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꿈길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다. 문의 043-880-5738

▶최송이 기자 songi121@donga.com

체험활동 연관 직업

소비자업무전문가: 소비자업무전문가는 소비자와 관련된 업무를 소비자보호 관련기관에서 수행한다. 기본적인 소비자 상담은 물론, 소비자 관련 정보의 수집과 관리, 소비자 교육, 소비자 트렌드 분석, 소비자 조사 업무 등을 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한다.